

국산 농산물 온라인 특별기획전 '농부가바로팜'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확대 25일까지 4개 온라인몰서 진행... 20% 할인 쿠폰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생산자들의 온라인 거래 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2주간 국내 대형 온라인몰 4개사와 제휴해 '농부가바로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농축산물 생산자 200여사가 대거 참여해 네이버, 쿠팡, 지마켓, 롯데온 4개 온라인몰에서 사과, 배, 감귤 등 신선 농산물과 다양한 가공식품을 판매한다. 행사 기간 내에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상품가격의 20%, 최대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농부가바로팜' 온라인 특별기획전은 농식품부와 aT가 추진하는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자들의 온라인 거래 참여와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aT는 이번 기획전 참여자들에게 온라인 거래 참여에 필요한 상세 페이지,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교육을 비롯해 1:1 컨설팅, MD 품평회 등 실질적으로 온라인 거래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를 경험한 유통·소비자 마케터가 상품 판매가 어려운 농가의 상품을 위탁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매칭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aT 김형목 유통이사는 "‘농부가바로팜’ 온라인 특별기획전은 위촉된 경기 여건에서 생산자에게는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다채로운 품목 만큼 수 있는 국산 농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간 2024.10.14 - 10.25

농부가 바로팜에서는 다채로운 품목 만큼 수 있는 국산 농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 할인 쿠폰 (인당당첨 1회 한정)

NAVER COMET, COUPANG, ZIMARKET, LOTTEON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13대 회장 선거에서 임근홍 현회장(우) 한회사 유림건설)의 연임이 확정되었다.

임근홍 전건설협회 회장, 연임 확정

대표회원 100명 참석... 임시총회서 만장일치 결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13대 회장 선거에서 임근홍 현회장(유한회사 유림건설)의 연임이 확정되었다.

협회는 14일 오전 11시 전주 그랜드호텔호텔에서 대표회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 제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자 만장일치 결의로 임근홍 회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임근홍 회장은 지난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수주절벽의 위기에 내몰리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한 전문건설업계의 회복과 성장을 공약하며 도회장에 당선되었고, 지난 3년여의 임기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12월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종전 2억원에서 4억 3천만원으로 확대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이와 더불어, 회원사 수주물량 증대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도내 전문건설업 기성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결실을 맺었고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들이 급변 선거에서 회원사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근홍 회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다시 선택해 주신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회원사만을 바라보며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적격심사 낙찰하한을 상향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 회원사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신뢰받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옥기기자

전북중기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웅, 이하 전북중기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시행했다. 다만 연 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통·도매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으로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되며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신청 방법을 개선하여 콜센터(1533-0200)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기본정보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김옥기기자

"흔들리는 지역수협... 모든 조치 강구해야"

민주 이원택 의원 "지역수협 91개중 24개(26%)가 부실우려 · 경영관리대상"

어민, 수산업 종사자 여촌계 등 농업인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의 첨병인 지역수협(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수협 91개 중, 부실우려 또는 경영관리대상 조합이 24개(26%)로 지

역수협 4개 중 1개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중앙회는 지역수협의 부실 및 경영관리를 위해서 경영상태평가와 경영위험 평가를 실시한다. 경영상태 평가는 지역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부실 및 부실 우려 조합을 선정하고, 매출 지역조합의 경영위험 평가를 통해 경영 관리 대상 조합을 선

정한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 어업과 수산업의 근간인 지역수협의 4개 중 1개가 부실 우려 또는 경영관리대상 조합으로, 지역 수산업의 근간인 지역수협이 무너지고 있다"며, "수협중앙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역수협이 무너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미래 토양학 전문가 81명, 토양 조사 역량 거뒀다

농진청, 한국토양비료학회와 제10회 토양조사경진대회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한국토양비료학회와 함께 12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10회 토양조사경진대회를 열었다.

토양조사경진대회는 토양학을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이 모여 토양 조사 역량을 겨루는 자리다. 올

해는 22명, 81명이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했다.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이 작성한 토양의 층위, 성질, 구조, 지형 분류, 작물 재배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해 순위를 거뒀다. 이를 위해 대회 전 토양 전문가들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론

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개인전에서는 토양비료학회장상 수상자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참여 2명, 단체전에서는 농촌진흥청장상(최우수 1팀, 우수 1팀)과 국립농업과학원장상(장려 3팀)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10월 24일 한국토양비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2021년 토양조사경진대회 개인전 입상자 4명이 한국 대표로 2022년 7월 영국에서 열린 세계토양조사경진대회에 참가해 총 10팀 중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현병근 과장은 "토양조사경진대회 참여 학생들이 토양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토양학 전문가로 성장해 국내 토양 문제와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의 탄소 저장 등 토양 조사 분야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건설 전북, 제3회 운영위원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전주 금양장에서 운영위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최근 협회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 후, SOC 예산 감축 등 지역 건설업계 현안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와 건설산업 안전문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설현장 산업안전예비, 대응전략과 안전보건관리 구축체계 등에 대해 정호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의 강연이 있었다.

소재철 회장은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속에서 공사 발주량 감소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농민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하며, 앞으로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유명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은 "협회와 소통을 강화해 지역내 중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